

정조대 영남 무관 노상추의 지역 정체성과 북방 관직활동

하 명 준*

- I. 머리말
- II. 노상추의 가문 배경과 지역 정체성
 - 1. 노상추 집안의 내력과 黨禍
 - 2. 노상추의 영남인 의식과 出仕
- III. 북방에서의 현지 인식과 관직 활동
 - 1. 함경도 진동만호 시절의 지역 인식과 邊將 활동
 - 2. 평안도 삭주부사로의 임명과 목민 활동
- IV. 맺음말

국문초록

정조대 出仕한 노상추는 영남 남인의 사족 출신으로 원래는 문관이 되고자 하였다. 그러나 숙종대 환국 과정에서 노론에게 ‘黨禍’를 입은 집안 내력 및 영남 남인에 대한 정치적·지역적인 홀대로 인해 진로를 수정하여 무과로 전향하였다.

노론 주도의 정국에서 노상추는 무과 급제와 宣薦, 그리고 벼슬을 얻기 위해 지난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는 정조 11년(1787) 함경도 감산의 진동만호로 발령받았을 때 세력이 없어 쫓겨나는 것이라고 단언하였는데, 그 저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소 / life24@snu.ac.kr

변에는 변방 갑산을 오랑캐의 땅으로 여긴 지역인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영남 남인으로 세태를 원망하던 노상추는 정조와의 만남을 통해 관료 생활의 획기적인 전기를 맞았다. 탕평책을 추진한 정조의 特旨로 정3품의 평안도 삭주부사에 임명된 노상추는 尙武와 농본 위주의 목민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목민 활동의 과정에서 이웃한 고을의 수령들과 불화가 있기도 하였다. 이는 노상추가 견지한 ‘영남인 무관’으로서의 지역 인식과 정체성에서 말미암은 것이었다. 이로 인해 노상추는 삭주부사에서 파직당했다. 이후 영남 남인을 견인하던 정조가 승하하면서 功名을 이루고자 했던 노상추의 노력도 무산되고 말았다.

◆ 주제어

노상추, 정조, 영남, 남인, 지역 정체성, 북방 관직활동

I. 머리말

숙종 이래로 조선은 정치, 경제, 학술, 문예 등의 여러 부문에서 서울의 독주와 지방의 낙후라는 이른바 경향분기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었다. 특히 성리학의 본고장으로 자부하던 영남 지역 출신의 정치적 소외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正祖는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여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서울 노론에 편중된 권력을 조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힘입어 영남 출신 인사들의 관직 진출이 종전에 비해 활기를 띠 수 있었다. 이 글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남인계 영남 무관 盧尙樞(1746~1829)의 지역 정체성과 관직 활동도 바로 그러한 정조대의 정국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

노상추는 慶尙道 善山에서 태어나 생을 마감할 때까지 명망 있는 士族의 위상과 풍모를 계승하여 영남 남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오롯이 간직했던 무관이었다. 그가 무관에 종사하게 된 데에는 黨禍에 휩쓸린 집안 내력과 함께 구조적인 문제가 내재하고 있었다. 노상추 집안의 사람들은 남인이 정계에서 축출된 갑술환국(1694)을 거치는 과정에서 집권 노론에게 배척을 받아 문과로 입신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영조 연간에 남인 일부가 가담한 ‘戊申亂’(1704)이 진압되어 영남 지역이 ‘叛逆鄉’으로 낙인된 뒤로는 文士로 현달하는 것이 한층 곤란하게 되었다. 이렇듯 노상추가 문과를 포기하고 무관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된 데에는 영남 남인에 대한 정치적·지역적인 홀대가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정조대에 무과에 급제한 노상추는 그 뒤로 30여년간 내외직을 오가며 생애의 대부분을 관료로 복무하였다. 외직으로는 함경도 갑산, 평안도 삭주, 충청도 홍주, 경상도 가덕에서 근무하였다. 이 중에서 특히 정조대에 근무한 갑산과 삭주는 변지 이력을 적용받을 만큼 변방으로 손꼽혔던 곳으로, 이 지역에 노상추가 부임하게 된 것은 그가 영남 남인이라는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그렇지만 갑산과 삭주에 부임하게 된 경위는 전혀 달랐고, 본인 스

스로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 즉 전자는 노론 주도의 정국에서 자신이 기대 수 있는 ‘세력이 없어’ 서울에서 쫓겨나듯이 차출된 것이었다면, 후자는 탕평정치의 기조 아래 노론을 견제하고 남인을 복돋우려는 정조의 후원을 받아 당상관의 직함을 띠고 나아간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갑산과 삭주에 대한 인상과 그 곳에서 수행한 관직 활동은 범주와 역할 면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었고, 자신의 심정과 처지에 따라 양상을 달리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노상추 집안에서 남긴 방대한 양의 일기와 고문서를 검토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중 노상추의 仕宦과 연계해서는 家勢의 변동,¹⁾ 재산과 농업경영의 변화,²⁾ 가족구조³⁾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노상추의 관료 생활에 대해서는 공간적인 관심이 주로 중앙에서의 복무 활동에 집중되어 있었다.⁴⁾ 그렇지만 노상추의 官路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지역과 당파의 문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염두에 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아울러 노상추가 영남 남인의 기준과 처지에서 관직 생활을 수행한 북방 변지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시야를 확장해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서 남인계 영남 출신의 노상추가 견지한 지역적 자의식과 정체성이 형성·발현된 내역을 추적하고, 또 그것이 북방 변지에서의 관직 활동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투영되어 전개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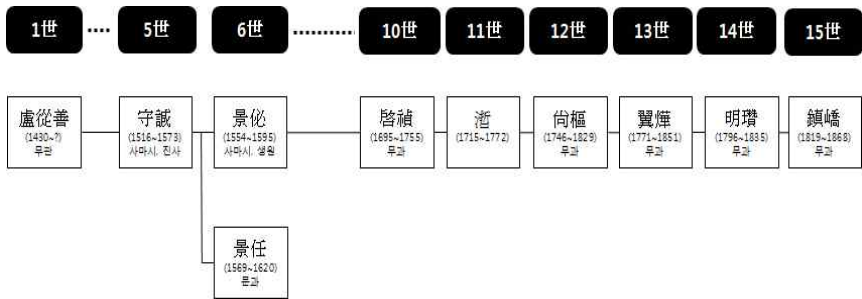
-
- 1) 崔承熙, 「朝鮮後期 兩班의 仕宦과 家勢變動-善山 武班家 盧尙樞의 事例를 中心으로-」 『한국사론』19, 1988.
 - 2) 이정수, 「조선후기 盧尙樞家의 재산변동과 농업경영」, 『지역과 역사』29, 2011.
 - 3) 李成妊, 「조선후기 경상도 한 武班家의 가족구조 재구성-호구단자와 일기의 비교검토-」, 『대동문화연구』83, 2013.
 - 4) 정혜은, 「조선후기 무신의 중앙 관료생활 연구-『盧尙樞日記』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143, 2008.

II. 노상추의 가문 배경과 지역 정체성

1. 노상추 집안의 내력과 黨禍

노상추는 영조 22년(1746) 경상도 善山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安康(慶州), 자는 用謙, 호는 西山窩이다. 貫鄉의 시조는 신라때 大匡政丞을 지냈다고 전해지는 盧光漢이며, 朝鮮朝에서는 入鄉祖로 알려진 盧從善으로부터 12세에 해당한다.⁵⁾ 먼저 노상추 집안의 家系를 입항조 이래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개괄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노상추 집안의 주요 인물 가계도



여기에서 입항조인 盧從善은 軍器寺僉正에 올랐던 무관인 동시에 영남사림의 종조로 추앙받는 김종직의 문인이자 학자로도 명망이 높은 인물이었다.⁶⁾ 노상추의 7대조 盧守誠은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고, 학문적인 능력을 인정받아 선산에 자리한 文山書院에 봉향되었다. 6대조 櫟亭 盧景佖은 노상추의 중시조가 되는 인물이다. 寒岡 鄭述의 문하에서 학문을 익혔고,

5) 盧翼燁, 『西山窩公家狀』(1846)[『慶州盧氏族譜(丙子譜)』1, 1996, pp.268~278 수록, 이하 『慶州盧氏族譜』로 약칭함.

6) 『一善志』2, 「人物」(1618), 勳烈·文武·蔭仕·應薦, ‘盧從善’.

旅軒 張顯光과 어울려 공부하면서 함께 鄉薦을 받았다. 사마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었으며, 학문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어 그 역시 문산서원에 입향되었다. 노경필의 아우 盧景任은 외숙인 장현광에게 배우고 또 西厓 柳成龍의 문하에서도 학문을 익혔다. 그는 문과에 급제하여 三司의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사후에 승정원 도승지로 추증될 만큼 文班으로 현달한 인물이었다.⁷⁾ 이렇듯 노상추의 집안은 선산 일대에 정착한 이래 영남학과 사족으로서의 위상과 학문적인 권위를 갖춘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노경임 이후 노상추 집안에서는 더 이상 문과 계통에서 두드러진 인물이 나오지 못했다. 오히려 노상추의 조부 盧啓禎이 애초에 뜻을 품었던 문과를 포기하고 무관으로 出仕한 뒤로 집안에서 잇달아 무과 급제자를 배출하게 되면서 전형적인 무반가문을 형성하게 되었다.⁸⁾ 당시 노계정이 ‘붓을 던지고’ 무과로 전향한 것은 “몹시 가난하여 생활해 갈 길이 없었다”고 하는 생활고가 저변에 자리하고 있었다.⁹⁾ 하지만 단순히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노씨 문중에 전해오는 기록에 따르면 당쟁에 의한 집안의 재앙, 곧 ‘黨禍’를 ‘反武’의 이유로 보다 비중 있게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숙종조에 노상추 가문은 서인(노론)과 남인 사이에 치열하게 전개된 당쟁에 연루되면서 집안이 禁錮에 처해지는 등 정치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았던 것이다. 이는 노경임의 아들 盧以益(1641~1695)이 노론 세력을 비판하면서 올린 상소가 발단이 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사건의 전말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숙종 3년(1677) 남인계 사관 尹義濟가 적상산 사고에 보관된 『仁祖實錄』의 내용 중에서 孝宗이 뇌물을 써서 세자 자리를 도모하였다는 기사를 보고

7) 『慶州盧氏族譜』, 「西山窩家狀」, p.268 ; 박홍갑, 「경주노씨 성립과 그 일파의 선산 지역 정착과정」, 『역사와 실학』31, 2006, pp.107~112.

8) 노상추 집안은 시조로부터 10세에 해당하는 노계정을 비롯해서 15세손인 노진교에 이르기까지 6대 동안 10여명의 무과급제자를 배출함으로써 명실공히 무반가문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였다(문숙자, 『68년의 나날들, 조선의 일상사-무관 노상추의 일기와 조선후기의 삶-』, 너머북스, 2009, p.89 수정 보완).

9) 盧啓禎, 『竹月軒文集』4, 「附錄」, 行狀. “吾貧甚無以自資…遂投筆學射.”

그 내용을 아버지 尹鑄에게 전달하였다. 그러자 윤희는 실록을 작성했던 서인들이 효종을 모함한 것으로 인식하여 상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였으나 남인 대신들의 만류로 중단하였다. 하지만 이미 윤의제가 보았다는 실록의 내용이 누설되어 민간에까지 널리 유포된 상태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신환국(1680)을 기화로 정권을 잡은 서인 세력은 실록의 내용을 발설한 윤의제에게 책임을 물어 유배에 처하도록 하였다.¹⁰⁾

그런데 기사환국(1689)을 거치면서 정국의 주도권이 서인에서 남인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 무렵 남인계 유생 노이익은 실록에서의 효종 폄훼가 효종을 적통으로 인정하지 않는 서인의 정치적 입장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奸孽’의 처벌을 촉구하였다.¹¹⁾ 잘 알려져 있듯이 남인은 현종조의 예송 논쟁 과정에서 왕권 중심의 ‘王者禮不同土庶’를 주장하며 효종의 정통성을 보위하고자 했던 반면에 서인은 신권 중심의 ‘天下同禮’에 입각해서 사실상 효종의 宗統을 부정하는 입장에 있었다. 이렇게 봉당 사이에 전개된 예송은 정권의 향배와 직접 연계되고 있던 터였다.¹²⁾ 따라서 노이익이 올린 상소는 숙종조 서인(노론)과 남인의 대결 구도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었다. 이런 까닭에 숙종 16년(1690) 조정에서는 실록을 열람해서 확인하는 사안을 놓고 논의가 분분하였으나, 숙종은 거짓된 내용이 있다면 속히 밝히고 거짓이 없다면 사람들의 의혹을 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하교를 내림으로써 마침내 秘藏된 실록을 열어보게 되었다.¹³⁾

그렇지만 막상 춘추관의 실록을 확인한 결과 무성했던 소문과는 달리 실록에는 효종을 誣筆한 글이 실려 있지 않다고 보고되었다. 그 결과 노이익은 잘못된 상소를 올린 죄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¹⁴⁾ 그리고 갑술환국(1694)으로 서인이 정권을 잡은 해에 혹독한 국문을 받은 뒤에 처형되고 말았다.¹⁵⁾

10) 盧以益, 『己甲錄略上』, pp.1~2.

11) 盧以益, 『己甲錄略上』, p.3 ; 『숙종실록』21, 숙종 15년 10월 10일(계유).

12) 『한국사32-조선후기의 정치』, 국사편찬위원회, 1997, pp.32~34.

13) 盧以益, 『己甲錄略上』, pp.9~11 ; 『숙종실록』22, 숙종 16년 1월 9일(신축).

14) 盧以益, 『己甲錄略上』, pp.12~13 ; 『숙종실록』22, 숙종 16년 4월 14일(을해).

15) 『숙종실록』28, 숙종 20년 12월 24일(정사) ; 『숙종실록』28, 숙종 21년 1월 17일(기)

실상은 『인조실록』의 효종 관련 기사를 조사할 때 40여자가 칼로 도려진 채 발견되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노이익의 상소로 촉발된 실록 내용의 진상 규명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였다.

이 사건을 겪은 후 노상추 집안은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아 한동안 재기 불능의 상태에 처해졌다. 이를테면 노이익의 再從侄 盧聖與와 再從曾孫 盧滄은 삭방을 당해 사마시의 합격이 무효로 처리되었다. 또한 三從孫 노계정은 노론 세력의 저지를 받아 문과를 단념하고 그보다는 견제가 덜하면서도 사족의 한 축을 형성할 수 있는 武人の 길을 택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안강 노씨 족보에서는 노계정 이후로 온 집안 사람들이 무관의 일을 익혀 왔다고 지적하면서 이상과 같은 사실을 두고 “차마 다 말할 수 없는 甲戌年の禍”로 기억하였다.¹⁶⁾ 바로 이와 같은 정치적 환경과 집안 내력으로 노계정의 후손들은 초기에는 학문에 종사하였으나 이내 무과로 궤도를 수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노상추의 아버지 盧潛 같은 경우에는 향리에 살면서 아예 봉당이 라는 말 자체를 입에 담지 않았으며,¹⁷⁾ 노상추에게는 무예를 배우도록 명하였다.¹⁸⁾ 주변의 친척들 역시 노상추에게 무과 응시를 권유하였다.¹⁹⁾ 이런 속에서 노상추는 그의 나이 스물셋 되던 영조 44년(1768)에 마침내 붓을 던지기로 결심하고 새롭게 武人の 꿈을 키워 나갔다.²⁰⁾

2. 노상추의 영남인 의식과 出仕

노상추는 무예를 연마한 지 12년이 지난 정조 4년(1780)에 이르러서야

묘).

16) 『慶州盧氏族譜』, 「處士月波公行狀」, p.160.

17) 『慶州盧氏族譜』, 「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養失堂公行狀」, p.232.

18) 『慶州盧氏族譜』, 「贈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訓練院都正行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西山窩公行狀」, p.244.

19) 『노상추일기』, 1768년 7월 7일.

20) 『노상추일기』, 1768년 7월 27일.

마침내 무과 방목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²¹⁾ 이처럼 과거에 급제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요구되었던 까닭은 개인의 능력보다 家勢의 유무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던 시험 풍토에도 원인이 있었다. 일례로 노상추는 자신이 급제했던 시험에서조차 다음과 같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었다.

무릇 講書는 스스로 계산할 때에는 4책이 純通이었으나 결국 純粗를 받았으니 세력이 있고 없고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²²⁾

여기서 언급한 것처럼 노상추는 강서 과목마다 通, 略, 粗, 不通의 순서로 매겨지는 점수에서 純通, 즉 모든 과목의 최고 성적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純粗에 불과한 점수를 받게 된 것은 세력의 있고 없음에서 판가름이 난다고 진단하였다. 이렇듯 과거 운영의 부조리가 만연한 속에서 영남 남인 계열로 정치적 영향력이 없는 노상추가 무과에 급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때문에 그는 급제가 확정된 순간 쌓인 울분을 토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天幸’이라고 환호하였다. 아울러 본인을 포함해서 영남 출신 급제자가 5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특기하고 이러한 경사는 근래에 보기 드문 일이었음을 환기시켰다.²³⁾ 실제로 몇 년 뒤에 실시된 식년 무과를 보면 수백 명의 응시자 중에서 영남인으로 參榜한 사람은 고작 2명에 불과하였다.²⁴⁾

21) 『노상추일기』, 1780년 2월 25일.

22) 『노상추일기』, 1780년 2월 24일. “大抵應講自量 則四冊純通 而竟受純粗 有勢無勢 此之謂也.”

23) 『노상추일기』, 1780년 2월 25일.

노상추의 급제 소식이 알려진 후 고향집에서는 잔치가 열렸는데, 거의 5~6천명의 손님들이 뒷산까지 뻗뻗하게 모여 들었다고 한다. 당시 동네에서 과거 합격으로 풍악을 울리고 창을 하며 노는 일이 대단히 드물었기 때문이다(『노상추일기』, 1780년 4월 1일). 본래 경상도 善山은 국초부터 김종직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은 관료와 학자들을 대거 배출하여 인재의 산실로 불리는 지역이었다(金盛祐, 「15, 16세기 士族層의 고향 인식과 거주지 선택 전략-慶尙道 善山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198, 2008, p.48). 이를 감안하면 정조대 노상추의 무과 급제로 축하 손님이 문전성시를 이룬 광경은 상당히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다.

24) 『노상추일기』, 1789년 4월 9일.

비록 각고의 노력 끝에 무과에 급제하였지만 노상추는 다시 宣薦에 뽑히기 위해 마음을 졸여야 했다. 선천은 국왕의 친위무관인 宣傳官의 후보자로 천거되는 것을 의미하였으므로 선발이 매우 엄격하였고 지역적으로도 일정한 제한이 있었다. 즉 조선후기에 선천은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근기 지역의 사족을 대상으로 선발되었고, 평안도와 함경도 출신은 아예 배제되었으며, 영조대 이후에는 영남 사람조차 薦望에 오르는 경우가 극히 드문 실정이었다.²⁵⁾ 노상추의 조부인 노계정도 여러 사람에게 저지를 당해 선천에 들어가지 못하고 副薦에 머무른 전력이 있었다.²⁶⁾

이런 사정에서 노상추의 선천 선발은 수월하지 않았다. 그 역시 천거 과정에서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으며,²⁷⁾ 심지어 같은 영남 출신으로 인근 고을에 사는 인물이 노상추의 선천을 방해하기도 하였다.²⁸⁾ 그는 선천을 위한 모임에서 물망에 오르기만 할 뿐 거듭해서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²⁹⁾ 그러다가 마침내 급제한 지 2년여 만인 정조 6년(1782) 12월에 고위직 진출의 관문이 되는 선천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³⁰⁾

그런데 이번에는 또 벼슬을 얻는 일이 녹록치 않았다. 갑술환국(1694)으로 노론에게 정권을 내어준 뒤로 남인계 영남 사람들은 정계에서 밀려나 ‘100년 동안 불우한 처지’에 있다고 말해지는 형국이었다.³¹⁾ 특히 영조 4년(1728)에 남인 일부가 가담한 戊申亂이 진압당한 것을 계기로 영남이 ‘反逆鄉’으로 낙인되면서 이 지역 양반들의 중앙 진출 기회는 거의 봉쇄되고 있었다.³²⁾ 정조 8년(1784) 12월, 노상추가 武兼에 낙점되어 처음 벼슬을 하게

25) 吳洙彰, 『朝鮮後期 平安道 社會發展 研究』, 일조각, 2002, pp.30~36 ; 張弼基, 『朝鮮後期 武班閥族家門 研究』, 집문당, 2004, pp.94~102.

26) 『慶州盧氏族譜』, 「嘉義大夫慶尙左道兵馬節度使竹月軒公行狀」, p.186.

27) 『노상추일기』, 1781년 6월 8일, 10월 17일, 12월 15일.

28) 『노상추일기』, 1781년 6월 7일.

29) 『노상추일기』, 1780년 12월 11일, 1781년 6월 9일, 10월 17일, 12월 15일.

30) 『노상추일기』, 1782년 12월 16일.

31) 李承延(1720~1806), 『剛齋遺稿』, 「嶺對」. “嶺人之不遇也 殆將百禩矣.”(『鹽州世稿』 8, 1972, p.190에 수록) ; 金周富, 「이승연의 생애와 <嶺對>에 나타난 영남인식」, 『大東漢文學』37, 2012, p.255, 275.

되자 “감사하고 기쁘기 그지없다”는 소감을 밝히면서 안도하였던 것은 영남 출신을 소외시키던 저와 같은 사정이 더해졌기 때문이었다.³³⁾

노상추는 영남인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지닌 인물이었다. 그는 『明義錄』을 읽으면서 사도세자를 폄박하고 정조의 대리청정을 반대한 노론 대신의 賜死를 다룬 내용을 가슴에 새겼다.³⁴⁾ 매년 도목정사가 열릴 때에는 영남인의 관직 획득과 변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관련 사항을 빠짐없이 기술하였다. 여기에서 그가 출신 지역과 出仕의 문제를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있음을 간취할 수 있다. 가령 노상추는 정조 4년 12월에 개최된 도목정사를 지켜보면서 “영남 사람으로 수령에 제수된 사람은 서천군수가 된 명천부사 권흥과 낙안군수가 된 사천현감 최익대 뿐이다”³⁵⁾라고 적어 두었다. 이와 같은 영남인의 진출 부진과 한직 등용을 적시한 기사들은 그의 일기 곳곳에서 산견된다.³⁶⁾ 어느덧 30대 후반이 된 노상추는 “벼슬에 나아가려는 욕심이 과거에 합격하려던 시절의 욕심보다 갑절은 더하다”³⁷⁾고 하면서 초조한 나날들을 보내야만 하였다.

이런 가운데 정조 8년 12월, 노상추는 드디어 武臣兼宣傳官에 낙점을 받아 첫 벼슬을 시작할 수 있었다.³⁸⁾ 그가 맡은 禁軍職은 입직과 시위 등의 업무가 가중하였으므로 고단한 생활이 이어졌다.³⁹⁾ 그럴 때마다 노상추는 榮轉에 대한 소망을 품고 열악한 환경을 견뎌나갔다. 우선 당장의 목표는 出六을 해서 종6품 이상의 參上官이 되는 것이었던 듯하다. 정조 9년(1785) 1월 4일, 노상추는 첫 근무일에 자신과 같이 처음 출근한 사람 중에서 陞六한

32) 李泰鎮, 「18세기 南人の 정치적 쇠퇴와 嶺南地方」, 『民族文化論叢』11, 1990, p.202 ; 李樹健,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일조각, 1995, pp.428~430.

33) 『노상추일기』, 1784년 12월 26일. “是日 都政畢 余以武兼末望蒙天點 感祝不已.”

34) 『노상추일기』, 1781년 윤5월 23일, 1785년 4월 27일.

35) 『노상추일기』, 1780년 12월 21일. “嶺人得外任者 權明川煥爲舒川郡守 崔泗川益大爲樂安郡守而已.”

36) 『노상추일기』, 1782년 1월 24일, 6월 29일, 1783년 12월 29일.

37) 『노상추일기』, 1782년 11월 1일. “官欲亦倍科欲者.”

38) 『慶州盧氏族譜』, 「西山窩公家狀」, p.270 ; 『노상추일기』, 1784년 12월 26일.

39) 정혜은, 앞의 논문, 2008, pp.307~309.

사람의 이력을 별도로 기록하였으며,⁴⁰⁾ 그 뒤에도 禁軍이나 權管 등에서 참상관이 된 자들을 꾸준히 特記하고 있기 때문이다.⁴¹⁾ 그러다가 정조 10년(1786) 12월, 노상추는 정6품에 승급되어 陞六에 도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때 발령받은 虛司果는 직함만 있고 실무는 있지 않은 대우직이어서 만족스런 벼슬자리라고는 할 수 없었다.⁴²⁾

Ⅲ. 북방에서의 현지 인식과 관직 활동

1. 함경도 진동만호 시절의 지역 인식과 邊將 활동

한양에서 금군으로 활동하던 노상추는 정조 11년(1787) 6월의 都政에서 비로소 참상관의 實職에 임명되었다. 그런데 정작 이 소식을 접한 노상추는 크게 낙심하여 다음과 같이 거친 언사들을 쏟아내었다.

이날 도목정사를 하였다. … 척형 정달신은 이성수령이 되었고, 그 밖의 영남 사람은 거론된 자가 없다. 나는 甲山鎭管 鎭東邊將이 되었는데 兵批에도 달리 거론된 자가 없다. 나의 변방 임명은 곧 쫓겨나는 것이다. 세력 없는 사람의 관례지만 이 또한 벼슬이니 어찌 죽음보다 낫지 않겠는가. 진실로 분하고 통탄스럽지만, 병조에서 나를 쫓아낸 것은 형세가 그러한 것이다. 신하된 자가 충성을 다함에 어찌 관직의 우열이 있겠는가. 스스로 달랠 뿐이다.⁴³⁾

40) 『노상추일기』, 1785년 1월 4일.

41) 『노상추일기』, 1785년 1월 9일·15일, 3월 26일, 4월 4일.

42) 『慶州盧氏族譜』, 「西山窩公家狀」, p.270.

43) 『노상추일기』, 1787년 6월 22일. “是日行都日政事 … 鄭戚兄達新甫爲利城 其外嶺人無舉論者 余則爲甲山鎭管鎭東邊將 而兵批亦無他舉論 余之邊任乃見逐也 無勢之例 而是亦官也 豈不愈於死乎 良可憤贖歎 然兵曹之逐我勢也 爲臣子盡忠 豈有官職之優劣乎 自寬而已.”

여기서 노상추가 임명된 함경도 갑산진관의 진동변장은 품계상으로 종4품의 진동만호를 가리킨다.⁴⁴⁾ 그럼에도 ‘세력이 없어’ 쫓겨났다고 분통을 터뜨렸던 까닭은 단지 관품의 높고 낮음에서 연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경도 갑산에 과견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있었다. 한반도 최북단의 변경 지대인 갑산은 성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夷州’ 즉 오랑캐의 땅으로 별칭될 만큼 이질적인 지역이었기 때문이다.⁴⁵⁾ 변방 오지에 속하는 갑산으로의 부임은 관료들에게 중앙정부와 멀어진다는 인식을 갖게 하였고, 王化가 미치지 힘들었던 까닭에 다스리기 어려운 ‘難治邑’으로 간주되었다. 더욱이 열악한 자연 조건과 국방상의 요지라는 부담감도 적지 않아서 여러모로 기피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⁴⁶⁾

그렇지만 노상추는 신하된 자의 본분을 되새기면서 분한 마음을 추스리고 갑산을 향해 길을 떠났다. 이때 노상추가 마주친 풍광과 인물에 대한 묘사를 통해 당시 그의 부정적인 심사를 가늠할 수 있다. 이를테면 그에게 “경치는 보기에 좋은 것이 없이 답답하기만 할 뿐”이었다.⁴⁷⁾ 관찰사에게 인사차 들른 장면에서는 범절과 하인이 三南과 달라 용렬함과 교활함이 막심하다고 지적하였다.⁴⁸⁾ 갑산의 從浦驛에 도착했을 때는 역마를 대령해 놓은 토졸이 한 명도 없는 것을 보고 자신을 곧 유배된 사람의 처지에 비유하였다.⁴⁹⁾ 도중에 들른 呼麟驛에서는 “역졸의 간악함이 천리를 가는 동안 처음 보는 것

44) 『大典通編』4, 「兵典」, 外官職, 咸境道. “萬戶十八員 從四品…甲山鎭管 雲龍·鎭東.” 기존 연구에서는 노상추가 임명된 진동변장이 종9품의 權管인 것으로 파악하여 그의 불만이 낮은 품계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승정원일기』의 기록에 따르면, 노상추는 참서관에 해당하는 종4품의 만호에 제수되었으므로 다른 측면에서 그의 실당감을 살필 필요가 있다(『승정원일기』, 정조 11년 6월 22일. “盧尙樞爲鎭東萬戶.”).

45) 정우봉, 「조선 후기 풍속지리 문헌에 나타난 關北 지역과 그 인식의 차이」, 『고전과 해석』, 2015, p.11.

46) 『갑산군지』, 갑산군지편찬위원회, 1999, p.168 ; 구완회, 「조선후기 ‘難治邑’의 여러 유형과 처방」, 『역사와 경계』70, 2009, p.14.

47) 『노상추일기』, 1787년 7월 1일. “山水則所見無奇勝 但鬱鬱而已.”

48) 『노상추일기』, 1787년 7월 10일.

49) 『노상추일기』, 1787년 7월 16일.

이었다”면서 장탄식을 늘어놓았다.⁵⁰⁾ 이러한 노상추의 푸념과 불만은 진동만호로 근무하는 내내 되풀이 되고 있었다. 갑산의 기후는 한 여름인데도 동풍이 불어 뼈 속까지 寒氣가 스며들었고,⁵¹⁾ 바람소리는 평지보다 심해서 가을바람에 ‘殺氣’를 느낄 정도였다.⁵²⁾ 그는 “이 곳에 앉아서 멀리 서울과 삼남을 생각하니 지형이 서로 상반되어서 정착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하였는데,⁵³⁾ 그러한 생각에 잠길수록 깊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자신이 마치 미친 사람 같고 술에 취한 사람처럼 되었다고 독백하였다.⁵⁴⁾

기별조차 쉽지 않은 변방의 땅 갑산은 노상추에게 ‘먼 이역의 땅’과 같았다.⁵⁵⁾ 이는 지형만이 아니라 갑산의 풍속이 서울과 삼남의 그것과 전혀 상반된다고 여기는 지역인식에서 기인하였다. 노상추가 보기에 예악문물과 교화는 8道에 균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그는 갑산 지역에서 행해지는 풍속의 태반이 오랑캐와 같다고 조소하였다. 그에 따르면 갑산에서는 기제사를 지낼 때 현손이 부친, 조부, 증조부, 고조부를 아울러 모시고, 고조부의 기일에도 역시 아들과 손자증손현손이 한꺼번에 제사지냈다. 보편적인 제사의 격식과 법도를 잃어버린 모습을 보며 노상추는 마치 ‘宗會’와 같다고 일축하였다. 혼인에 대해서는 新行을 할 때 상하의 구별이 없이 가마를 탄다고 비판하였다. 처자와 과부의 난잡한 풍습도 심각하였다. 소를 도살하는 일에도 거리낌이 없었다. 그리하여 노상추는 “이곳 역시 우리나라 땅의 백성인데 예의범절이 비로 쓸어버린 듯이 하나도 없다”고 질책하면서 갑산의 풍속은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⁵⁶⁾ 간혹 성리학적 예법에 맞게 시묘살이를 이행하는 선비를 본 경우에도 이는 ‘먼 땅’의 인물로서 특이한 행실을 가진 것이라 하여 예외적인 현상으로 치부하였다.⁵⁷⁾

50) 『노상추일기』, 1787년 7월 16일. “到呼獐驛 驛卒之奸惡 千里一見.”

51) 『노상추일기』, 1788년 6월 10일.

52) 『노상추일기』, 1787년 8월 9일.

53) 『노상추일기』, 1787년 8월 26일. “坐此遙想京都與三南 地形相背 不能定着矣.”

54) 『노상추일기』, 1788년 12월 7일.

55) 『노상추일기』, 1787년 8월 23일.

56) 『노상추일기』, 1788년 12월 7일. “此處亦我國土地人民 而所謂禮法等節 掃地無之.”

이렇듯 노상추는 갑산의 풍속을 저속하게 여기고 진동만호에 제수된 것에 낙담했지만 마냥 비판만 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는 고을의 내력이 소상하게 기재된 읍지를 활용하여 지역 사정을 파악해 갔다.⁵⁷⁾ 그리고 당면한 현안에 따라 여러 사안들을 처리하였는데, 그의 전반적인 관직 수행 상황은 鎭東鎭에서 수령한 關文을 통해 대강을 파악할 수 있다. [표 1]은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진동진에서 수령한 주요 關文의 현황

수령 일자	발신 기관	내용
1787.8.2		군사 훈련을 정지할 것
1787.9.26	병영	군병이 죽으면 情價를 혁파할 것
1787.9.27		信蔘을 봉진하기 전에 潛商을 엄금함
1787.9.28		병영의 耗穀을 發賣할 것
1787.9.29	갑산부	군병이 죽으면 情價를 혁파할 것
1787.10.11		중궁전의 출산을 앞두고 형 집행을 정지할 것
1787.10.20	갑산부	邊將의 이력단자를 수정해서 올려 보낼 것
1787.10.22		비록 罷防했다라도 행동거지가 황당한 사람이나 공문, 호패 등이 없으면 기찰해서 체포할 것
1787.10.26		신삼의 봉진을 재촉하고, 군병의 사고 및 무기를 신칙함
1787.10.28	병영	환곡을 신칙하고 전례대로 토산물을 바칠 것
1787.10.29		노비 추쇄와 부채 징수의 기한을 내년 가을까지로 연기할 것
1787.11.4		환곡을 거두고 封庫하는 일을 재촉함
1787.11.7	순영	수령·변장이 청렴하지 않아 백성을 편안하게 하지 않은 사람을 적발하라는 관찰사의 칙교가 있어서 읍·진·도호부에 관문을 보냄
1787.11.10	도호부	신삼의 처리와 가격에 대해 지시한 순영의 관문에 의거해서 도호부에서 관문을 보냄
1787.11.22. / 11.24	병영/ 갑산부	각 鎭에서 蔘을 봉해서 올려 보낼 때 士卒의 왕래하는 경비가 적지 않으므로 각각 해당 主官이 모두 받아들인 다음에 와서 납부하여 폐단을 줄이도록 할 것
1788.5.14		삼을 캐러 산에 들어간 인원수를 책으로 만들어서 보고할 것
1788.8.22		무과 試官 預差로 임명함
1788.9.14		신삼의 납부를 다음 해로 연기함

57) 『노상추일기』, 1787년 8월 20일.

58) 『노상추일기』, 1797년 9월 5일.

1788.9.28	병영	갑산부 관방의 형편을 항목별로 작성해서 성책하여 보낼 것
1788.10.4	순영	환곡을 받아들이라고 독촉하지만 지체되고 있음을 걱정함
1788.10.17		재해 정도에 따라 秋穀의 납부 기한을 연기해줌
1788.11.1	병영	토저피와 산양피 등의 공물을 병영에 와서 바치는 폐단을 혁파할 것
1788.11.16	순영	전교로 인하여 재해 정도에 따라 환곡과 전세대동미포의 납부 기한을 연기해 줌
1789.2.22		병영으로 耗穀을 실어 보낼 것
1789.4.4	慰諭御史	각 진의 폐막을 바로잡아 어사에게 올리라고 함
1789.8.20		永祐園의 移葬과 관련해서 변경의 각 고을에서는 變服을 하지 말 것. 가을 훈련과 관문에 모아놓고 점고하는 일을 정지할 것. 親騎衛 都試는 馬兵 都試와 함께 시험을 실시할 것.
1789.8.30	병영	친기위 도시의 試所를 左都廳官에서 거행함

[표 1]을 중심으로 노상추가 진동진에서 수행한 관직 활동 내역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 및 국방과 관련된 일이다. 진동만호 노상추는 국경일대에 포진한 진보의 방어를 주된 임무로 하고 있었다. 그는 기본적으로 병영이나 갑산부 등의 상급 관부에서 보낸 關文에 의거하여 군사에 관한 지시와 명령을 이행하였다. 그것은 군사 훈련을 정지시키는 일,⁵⁹⁾ 병사가 죽었을 때 情債를 혁파시키는 일,⁶⁰⁾ 罷防을 했더라도 거동이 수상한 자를 기찰해서 체포하는 일,⁶¹⁾ 군병의 사고[有頃]와 무기를 신척하는 일,⁶²⁾ 무과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일,⁶³⁾ 갑산부의 關防 현황을 성책해서 보내는 일⁶⁴⁾ 등이었다.

특히 노상추는 “오직 관방을 위주로 했다[惟關防爲主]”고 평가받을 만큼 변방 방어에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고 있었다. 한 예로 정조 12년(1788) 6월, 禹禎圭가 상소로 진술한 『經濟野言』에서 삼수갑산의 鎭들이 쇠잔하여

59) 『노상추일기』, 1787년 8월 2일, 1789년 8월 20일.

60) 『노상추일기』, 1787년 9월 26일·29일.

61) 『노상추일기』, 1787년 10월 22일.

62) 『노상추일기』, 1787년 10월 26일.

63) 『노상추일기』, 1788년 8월 22일, 1789년 8월 20일·30일.

64) 『노상추일기』, 1788년 9월 28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2鎭을 6鎭으로 줄이자는 견해를 피력하자 정조는 묘당에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⁶⁵⁾ 그리하여 비변사는 함경도 감영과 병영에 관문을 보내 삼수와 갑산의 관방 형편, 鎭의 현황과 폐단 등을 문의하였다. 이에 대해 삼수와 갑산의 鎭들은 의견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노상추는 관방의 긴요와 지형의 편이에 대한 견해를 갖추어 상부에 보고함으로써 군사적인 안목을 보여주었다.⁶⁶⁾ 그 밖에 慰諭御史가 각 鎭의 폐막을 바로잡기 위한 계책을 요구했을 때 토졸 내외를 모두 해당 堡에 소속시킴으로써 군사를 늘리는 방편으로 삼자는 내용으로 成冊하여 첩보한 이도 노상추였다.⁶⁷⁾ 또한 그는 갑산부 일대의 관방 실태를 점검하는 가운데 청나라 기병의 습격에 대비한 鎭東鎭의 방어를 강조하는 동시에 嶺陔의 수호는 산림을 베지 못하게 함으로써 저절로 木柵을 이루게 해야 한다는 방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⁶⁸⁾ 노상추가 진동변장이 되어 처음 시행한 포폄에서 “잔약한 堡를 믿을 만하다”고 평가받은 것을 볼 때 그의 군사적인 능력에 대한 상부의 신뢰를 엿볼 수 있다.⁶⁹⁾

둘째, 환곡의 수납과 信蓼 등의 貢物을 처리한 일이다. 노상추는 처음 鎭東鎭에 부임한지 2개월 동안 관아에 公務가 없고 還政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할 만큼 고을에서 환곡이 비중 있게 취급되었다.⁷⁰⁾ 그 중 상급 관청의 지시에 따라 發賣한 耗穀을 적시에 거두어들이는 일이 관건이었다. 당시 환곡은 부세의 일환이 되어 민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지만, 갑산에서는 환곡을 나누어 줄 때 한 사람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할 만큼 주민들의 형편이 열악하였다.⁷¹⁾ 이런 속에서 환곡을 기한 내에 거두는 일이 자꾸 지

65) 『정조실록』, 1788년 6월 12일(계묘) ; 『승정원일기』, 1788년 6월 12일.

66) 『노상추일기』, 1788년 9월 15일~9월 28일 ; 『慶州盧氏族譜』, 「西山窩公家狀」, p.270.

67) 『노상추일기』, 1789년 4월 4일.

68) 『노상추일기』, 1788년 8월 21일.

69) 『노상추일기』, 1787년 12월 19일. “是日冬等貶題來到 題余云 質而且詳 殘堡可恃.”

70) 『노상추일기』, 1787년 8월 24일.

71) 『노상추일기』, 1788년 12월 24일.

체되곤 하자 巡營에서는 관할 고을에 환곡의 수납을 독촉하였다.⁷²⁾ 그런데 노상추가 만호로 있던 진동진에서는 환곡으로 고전하던 여타 고을이나 鎭들과 사뭇 다른 양상이 전개되었다. 가령 갑산부는 15,000石의 환곡 중에 고작 5,000섬을 거두었으나, 진동진에서는 나누어준 1,500섬을 거의 다 회수하여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는 것이다.⁷³⁾ 노상추가 기한에 맞추어 환곡을 납부하려고 하자 갑산부에 소속된 각 진에서 진동진만 홀로 끝내는 것을 꺼린다는 말이 회자되기도 하였다.⁷⁴⁾ 노상추가 포폄에서 환곡을 주고 받아들이는 일로 칭송이 높다고 하여 ‘上’의 평가를 받은 것을 볼 때 還政에서도 역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고 할 수 있겠다.⁷⁵⁾

한편, 진동진에서는 환곡 못지않게 통신사를 파견할 때 예단으로 보내는 信蓼이나 혹은 山羊皮·土猪皮와 같은 가죽 제품의 납부가 중시되었다. 지역 특성상 이들 공물의 납부와 관련해서는 犯越의 폐단이 심각하였는데, 그 이면에는 함경도 상인의 영리활동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노상추가 예시한 三水의 고을 사정에 따르면, 함경도 상인들이 蓼과 담비[貂鼠]를 사들이는 통에 鎭의 백성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국경을 넘어가 채집과 사냥에만 몰두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토졸과 社民이 모두 상인에게 빚을 지게 되었으며,⁷⁶⁾ 아울러 상부에 바치도록 되어 있는 공물도 구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⁷⁷⁾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상부에서는 潛商을 엄금하는 관문을 내렸다.⁷⁸⁾ 노상추도 역시 백성들의 越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지만,⁷⁹⁾ 현장에서는 감색과 좌수 등이 상인들을 비호하였으므로 본질적인 근절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⁸⁰⁾

72) 『노상추일기』, 1788년 10월 4일.

73) 『노상추일기』, 1789년 10월 24일, 11월 17일.

74) 『노상추일기』, 1789년 12월 25일.

75) 『노상추일기』, 1788년 12월 18일.

76) 『노상추일기』, 1788년 1월 12일.

77) 『노상추일기』, 1787년 11월 29일.

78) 『노상추일기』, 1787년 9월 27일.

79) 『노상추일기』, 1788년 1월 12일.

셋째, 재임 기간 중에 鎭畝와 성곽을 수리한 일이다. 노상추가 부임하였을 때 鎭의 관사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퇴락하였고 잡초 또한 무성해서 하나의 푸른 언덕과 같았다. 동헌도 반쯤 무너진 데다 벌레가 들어와서 도저히 거처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⁸¹⁾ 관아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옛 건물을 허물어 보니 동헌의 상량에는 ‘강희 50년(1711) 3월 26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무려 78년 만의 중건인 셈이었다.⁸²⁾ 이 공사에는 군인은 물론이고 還民과 인근 지역의 民人들까지 거의 매일 동원되다시피 하였다.⁸³⁾ 土卒의 경우에는 通引을 제외하고 노소와 상관없이 9인으로 1패를 만들어 총 9패로 구성하였는데, 날마다 1패씩 교대로 役に 종사하게 했다.⁸⁴⁾ 토목공사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여부를 하급 군관과 色吏의 직임을 차정하는 평가의 기준으로 삼기도 했다. 가령 군향 감관 金聲三은 관아 건립을 회피하는 일이 많았다는 이유로 직임이 교체되었다. 반면 관아 건립에 성실하게 참여한 朴德只是 병방 군관으로 승진시켜 차임하였다.⁸⁵⁾ 이렇듯 공사에 진력한 결과 노상추는 두 달이 조금 못되어 내외의 관아 건물을 다시 세울 수 있었다.⁸⁶⁾ 그리고 연이어 門樓를 세우고, 倉廩을 건설했으며, 동헌의 지붕과 성곽 등을 개량하였다. 그 결과 동문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110여 칸에 이르는 대규모의 토목 공사가 마무리되었다.⁸⁷⁾ 이로 인해 노상추는 최잔한 鎭을 수리하였다는 명목으로 네 차례의 포폄에서 연달아 ‘상’을 받았는데,⁸⁸⁾ 이는 감사

80) 『노상추일기』, 1789년 3월 4일.

81) 『노상추일기』, 1787년 7월 17일, 7월 18일.

82) 『노상추일기』, 1788년 2월 17일.

83) 『노상추일기』, 1788년 3월 2일~3월 21일 등. 갑산진의 관사 중건에 동원된 민인의 거주지를 열거하면 蘆坪의 桃花洞, 虛川, 城後里, 鬍毛老里, 細洞 上下里, 地景坪 細洞, 地坪 등이다. 洞里 단위까지 언급된 것으로 보아 갑산진 부근의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役事에 동원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84) 『노상추일기』, 1788년 3월 7일.

85) 『노상추일기』, 1788년 6월 24일.

86) 『노상추일기』, 1788년 3월 17일.

87) 문숙자, 앞의 책, 2009, p.235 ; 『노상추일기』, 1789년 5월 9일, 윤5월 12일.

88) 『노상추일기』, 1789년 12월 19일.

李秉模가 국왕에게 포상을 건의할 만큼 뚜렷한 성과로 인정되는 것이기도 하였다.⁸⁹⁾

이상과 같이 노상추가 수행한 진동만호 시절의 변장 활동은 상부에서 내려온 관문을 중심으로 착실하게 추진되었다. 그렇지만 근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빚어졌던 사실도 확인된다. 예컨대 官門에서 소란을 일으킨 죄인을 두둔한 土卒을 내쫓았더니 所志를 올려 노상추를 무고하였다.⁹⁰⁾ 노상추가 갑산부의 관아에 출입하였을 때 좌수 이하 여러 읍의 장교들이 능욕하고 핍박하자 부사에게 尊卑와 貴賤이 서로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논벌을 청한 일도 있었다.⁹¹⁾ 營門에서 진동진의 관아를 수리한 일로 포상을 청하는 啓를 올리려고 했을 때는 담당 色吏가 근거가 되는 文跡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하여 석연치 않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下吏와 노상추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⁹²⁾ 심지어 鎭卒들이 노상추에게 불만을 품고 관청을 조성하는 등의 일을 과장하여 갑산부사와 병영·감영에 疏狀을 올리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⁹³⁾ 이러한 현상에 대해 노상추는 “여기에 도착하여 형벌을 사용하지 않은지 1년이 되니 백성과 아랫사람들의 습속이 날로 예전과 달라졌다. 이처럼 하면서 또 반년이 지나자 관리가 관리답지 못하고 백성이 백성답지 못하게 되었으니 걱정스런 마음이 끝이 없다.”고 총평하였다.⁹⁴⁾ 노상추는 “형벌을 시행하는 정사는 말단이며, 다스림의 근본은 正學에 힘쓰는 것”이라는 신념을 지닌 인물이었다.⁹⁵⁾ 그럼에도 文藝에 바탕한 교화가 아닌 형벌에 의한 다스림을 긍정했던 것은 함경도 갑

89) 『慶州盧氏族譜』, 「贈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訓練院都正行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西山窩公行狀」, pp.244~245.

90) 『노상추일기』, 1789년 11월 28일.

91) 『노상추일기』, 1789년 4월 16일.

92) 『노상추일기』, 1789년 10월 5일.

93) 『노상추일기』, 1789년 윤5월 6일·7일, 1789년 윤5월 13일.

94) 『노상추일기』, 1788년 12월 1일. “到此藏刑周年民習與下習 日異時不同若此 而又過半年 則官不官民不民矣 悶念不已.”

95) 『노상추일기』, 1795년 7월 25일. “刑政雖曰治亂之藥石 此是末也 其本則務正學.”

산의 진동진에 부임하기 전부터 지냈던 이 지역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노상추가 기후, 풍속, 현지인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이질감을 느끼며 복무했던 진동진에서의 관직 생활은 정조 14년(1790) 1월에 훈련원 주부로 內遷함으로써 마감될 수 있었다.⁹⁶⁾

2. 평안도 삭주부사로의 임명과 목민 활동

함경도에서 3년여의 진동만호 생활을 청산하고 한양에 당도한 노상추는 정조 14년(1790) 4월 9일 대궐에 나아가 국왕 정조에게 謝恩肅拜를 올렸다.⁹⁷⁾ 그리하여 고대하던 한양에서의 관직 생활이 재개되었지만 노론이 장악하고 있던 중앙 정계에서는 당쟁과 영남인 배척이라는 현실이 노상추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정에서 당쟁의 폐단은 고질화된 상태였다. 사은숙배를 한 지 며칠 후 병조판서를 찾아간 자리에서 노상추는 “(진동만호로 있을 때) 무슨 재물이 있어서 그렇게 많은 관아를 수리할 수 있었는가”라는 조롱 섞인 질문을 받아야 했다.⁹⁸⁾ 또는 어떤 노론 재상이 노상추의 집안 내력을 지목하면서 송시열에 대해 상소를 올려 배척한 사람의 6촌 종손이며, 그로 인해 할아버지 노계정이 宣薦에 오르지 못했다고 하는 말을 듣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상추는 당시 노계정은 8촌 종손으로서 결국 배척을 당해 천거를 받지 못하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자신을 6촌 종손이라고 되돌리니 사람을 모함하는 참상이 심하다고 분노하였다.⁹⁹⁾ 노론 세력은 선천을 할 때 당색을 구별해서 남인을 한 명도 거론하지 않는다거나, 지역별로 안배된 영남 출신의 인재 등용에 대해 영남에 거주하는 非영남 출신을 천거해서 임금의 눈과 귀를 가리는 잘못

96) 『노상추일기』, 1790년 1월 1일.

97) 『노상추일기』, 1790년 4월 9일.

98) 『노상추일기』, 1790년 4월 19일. “往見兵判李埶大監 問余曰 有何財物 能修繕公廩之甚多也 不言爲國盡心 有若憑笑者 可怪可怪.”

99) 『노상추일기』, 1790년 12월 24일.

을 꼬집기도 하였다.¹⁰⁰⁾ 노상추의 상사인 禁軍別將이 내금위에게 전령을 내리면서, “서울[京華]의 세력 있는 금군이 지방 출신의 세력 없는 금군으로서 祿을 잃을까봐 걱정하는 무리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한 것처럼 영남 남인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모욕이 가해지는 실정이었다.¹⁰¹⁾

영남인 배척이 노골화된 현실에서 노상추의 정치적 불신은 팽배하였다. 그는 영남 사람이 인사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는 실태를 목도하면서 “병조가 공정하지 못하니 진실로 한심스럽다”고 하거나,¹⁰²⁾ “대개 영남 사람이 모두 탈락한 것은 이때보다 심한 적이 없다”는 등의 말로 불편한 속내를 토로하였다.¹⁰³⁾ 다른 한편에서는 “옛날부터 嶺西에서는 남인이라고 하면서 영남 사람을 배척하고 권세를 쫓는 것을 주로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같은 남인 내에서도 지역별 분화와 반목이 존재하였음을 시사한다.¹⁰⁴⁾ 정조 16년(1792) 6월, 노상추는 도목정사에서 기대와는 다르게 五衛將에 제수되자 “수령직을 얻지 못했으니 형세상 어떤 것인가. 지금 생각해보니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길 뿐이다”라고 세태를 한탄한 것은 당시 남인계 영남 무관의 처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말이라고 하겠다.¹⁰⁵⁾

훈련원 주부로 내천된 뒤 이렇다 할 관직을 얻지 못한 채 세상을 원망하던 노상추는 서울에 있는 영남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응어리진 회포를 풀며 기회를 도모하였다.¹⁰⁶⁾ 이런 가운데 그의 관료 생활을 바꾸어 놓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국왕 정조와의 만남이었다. 정조 16년 11월 2

100) 『노상추일기』, 1790년 12월 29일.

101) 『노상추일기』, 1791년 3월 12일. “聞禁軍別將申大謙 傳令一內禁軍曰 京華有勢禁軍 與鄉曲無勢 猶恐失祿之類 恥與比肩.”

102) 『노상추일기』, 1791년 6월 24일. “兵銓之不公 良可寒心.”

103) 『노상추일기』, 1791년 6월 27일. “大抵嶺人之全屈 未有甚於此時.”

104) 『노상추일기』, 1792년 3월 28일. “自古嶺西 所謂南人 排斥嶺外 趨勢爲主.”

105) 『노상추일기』, 1792년 6월 22일. “余復爲五衛將 不得爲外任 其於勢何 到今思之 自憐吾身而已.”

106) 『노상추일기』, 1790년 7월 21일, 1792년 8월 29일.

일, 대궐 밖에 입시하라는 전갈을 받고 나아간 노상추는 노계정과 어떤 관계이며 노계정이 수문장으로서 활약한 일화를 알고 있는 지를 묻는 정조의 하교를 받았다. 노상추는 자신이 노계정의 손자임을 밝히고 집안에서 전해지던 조부의 이야기를 상세히 아뢰었다. 이를 간단히 소개하면, 英祖 초기에 수문장이던 노계정은 중궁전 하인이 ‘內殿의 분부’를 칭하면서 입궐이 금지된 巫女를 대궐에 들이려 하자 그 하인의 모자를 칼로 내리치면서까지 출입을 저지시킨 적이 있었다. 또 하루는 상급자인 어느 선전관이 거짓 標信을 제출하고 궁궐을 출입하려 하자 칼을 빼들고 선전관을 쫓아갔더니 司謁이 나와 왕명을 받고 수문장을 시험한 것이었다고 만류하여 칼을 거둔 적이 있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계정의 복무 태도는 궐문 출입의 禁制를 바로하고 절의를 세웠다고 하여 궁중에서 널리 칭송되었는데, 선대에 그러한 사실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던 정조가 노상추를 불러 재차 그 내용을 확인했던 것이다.¹⁰⁷⁾

이후 노상추는 정조의 각별한 관심과 총애를 받았다. 그것은 수문장으로 공을 세운 노계정이 職마다 품계를 뛰어넘으면서 병마절도사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파격적인 행보와 흡사하였다. 예컨대 노상추가 노계정의 손자임을 확인한 정조는 하루가 지나지 않아 노상추를 당상 선전관으로 낙점하였다.¹⁰⁸⁾ 이와 같은 정조의 비호는 노상추가 세상에서 행세를 하고 벼슬을 한 뒤로 처음 주변 사람들의 질시와 비방을 받아보았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것이었다.¹⁰⁹⁾ 뿐만 아니라 정조는 활쏘기에서 1등을 했지만 應講에서 不通을 받은 노상추를 불러들여 講을 다시 시험한 후 純通으로 점수를 매기고, 이것으로 법전에 규정된 변지의 근무 일수를 채운 것으로 처리해서 정3품의 朔州府使로 임명하는 특전을 베풀었다.¹¹⁰⁾ 게다가 노상추가 입시한 자리에서 정조는 고을을 잘 다스려 치적을 세운다면 마땅히 방어사로 삼겠다는 優渥한 하교

107) 『臨汝齋先生文集』8, 行狀, 節度使盧公行狀, pp.23~24 ; 『노상추일기』, 1792년 11월 2일.

108) 『노상추일기』, 1792년 11월 3일.

109) 『노상추일기』, 1793년 6월 8일.

110) 『노상추일기』, 1793년 11월 18일.

를 내리기도 하였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노상추는 “감격하여 죽을 곳을 알지 못하겠다”는 말로 벅찬 심정을 갈음하고 있었다.¹¹¹⁾

물론 정조의 노상추에 대한 특별한 우대와 당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정조는 다음과 같은 말로 노상추를 중용한 까닭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세상에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노계정)을 얻을 수 있을까? 그의 손자 노상추를 직에 임명함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나의 好尙하는 바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¹¹²⁾

즉 정조는 노계정의 절의와 충성을 가상히 여겨 그것을 표창하는 의미로 노상추를 삭주부사로 임명했던 것이다. 이 무렵 정조는 노론 세력의 독주를 막고 당쟁의 폐단을 타파하기 위하여 강력한 왕권에 바탕을 둔 탕평정치를 모색하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정국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왕의 정책에 호응하는 인적 자원의 구축이 긴요하였다.¹¹³⁾ 당시의 정국 구도에서 정조의 왕권 강화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세력은 영남 남인계가 적임이었으므로 과거 노계정의 충절이 이때에 이르러 노상추를 통해 다시금 ‘시대정신’으로 호명되고 있었던 것이다.

노상추는 이러한 정조의 뜻을 충심으로 받들고자 했다. 그에게 정조는 의리상 아버지와 다름없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다.¹¹⁴⁾ 서둘러 길을 떠난 노상추는 정조 17년(1793) 12월 9일 전임 삭주부사와 印信을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하였다.¹¹⁵⁾ 우선 그가 삭주부사로 있으면서 시행한 주요

111) 『노상추일기』, 1793년 11월 25일. “感不知死所矣.”

112) 『弘齋全書』173, 日得錄13. “今世顧安得如此人 其孫尙樞之除職 欲使世人咸知予好尙.”

113) 金文植, 『嶠南賓興錄』을 통해 본 정조의 대영남정책, 『退溪學報』110, 2001, pp.4 27~428.

114) 『노상추일기』, 1792년 12월 30일.

115) 『노상추일기』, 1793년 12월 9일.

업무들을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삭주부사 재직시의 주요 업무 현황

수령7사	일자	내용
農桑盛	1794.5.6	종일 산천과 밭과 들을 둘러보니 진황지가 없고 새로 개간한 곳이 많았음
	1794.7.7	농사의 시기를 빼앗지 않음
戶口增	1794.1.5	민인이 달아나 유리하는 자가 점차 증가하므로 순영에 의견을 첨부해서 보고함
學校興	1793.12.15	향교에서 알성례를 거행하고, 훈장 이하 여러 유자들에게 『小學』을 공부하도록 권면함
	1794.2.8	향교에 들어가 재계함
	1794.3.13	향교의 거점생을 불러 『소학』의 講을 받음
	1794.4.1	백일장을 시행함
	1794.7.7	학교에서는 암송하고 독서하는 것이 잠시라도 끊어지는 때가 없었음
賦役均	1794.1.9	읍의 公債를 돈으로 이식하였는데 해마다 족징을 해서 민폐가 극심해짐. 돈이 아닌 미곡으로 바꾸고 이를 환곡에다 붙여서 이자 곡식을 받는 데에 사용함으로써 민폐를 줄임
	1794.1.17	백성에게 환곡을 나누어 주는 것을 감독함
	1794.7.7	매 戶마다 뿔나무와 싸리나무 1束씩을 줄여 주고, 無依戶는 답 1마리를 줄여줌
詞訟簡	1794.2.27	檢屍를 마침. 죽은 사람의 부모에게 공초를 받고, 正犯과 각 사람 등 여러 사람들에게 받은 공초를 살펴봄
	1794.2.29	獄案을 작성해서 파발로 부치고 창성부에 문서를 보내 覆檢을 요청함
	1794.7.7	옥송을 번거롭게 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소장을 올리는 일이 드물었음
奸猾息	1794.6.19	법을 여긴 채금꾼[採金軍] 무리를 잡아 가둠

* 비고 : 중복되는 내용은 한번만 기재함.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노상추가 삭주부사로 있을 때 수행한 목민 활동은 수령 7사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다. 그 중에서 특히 노상추는 상무정책

을 구사하여 군사적인 역량을 배가시키는데 힘썼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상추가 병마를 조련시키고 활쏘기에 우수한 자를 포상한 결과 삭주에서는 1년이 지나지 않아 활을 잡는 무사가 400~500명으로 증가되었다. 또 團東에도 일정한 제도가 있어 闕額이 없게 되었고, 기계를 수선하되 친히 보살핌으로써 軍備가 충실해질 수 있었다. 이에 비해 ‘學校興’으로 표상되는 문예의 진작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그것은 대체로 향교의 거점생에게 『소학』을 권면하여 講試를 하거나 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하는 정도에 국한되었다.¹¹⁶⁾

그런데 ‘軍政修’를 중시한 노상추의 목민 활동은 평안도에서 尙武를 조장하고 文治를 억제하려 했던 정조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당시 평안도는 사회경제적 성장에 기반하여 고을마다 文風이 확산되고 있었다. 평안도 지역 내에서 전개되는 이런 추세와 관련하여 정조는 전국적으로 文을 장려하고 武를 분발시켜야 하는 지역을 구분하면서, ‘武鄉’인 평안도에 대해서는 무예를 숭상하는 동시에 문풍의 확산을 경계하고 차단하는 정책을 구사하였다.¹¹⁷⁾ 노상추가 부사로 있던 삭주도 역시 그러한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가령 조정에서는 振武士를 양성하기 위해 고을의 유생들을 모두 다 참여시키라고 신칙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노상추는 “武를 추구하게 할 계획[隨武爲計]”을 담아 진무사의 절목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향교 훈장이 절목에 서명할 수 없다고 거부하여 규칙을 새롭게 정하게 되었다. 이로 볼 때 상무에 치중한 노상추의 목민 활동은 문치를 바라는 지역민의 기대와 다소 어긋났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상무를 기조로 하는 노상추의 목민 활동은 재임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¹¹⁸⁾

또 하나 노상추는 목민 활동에서 여느 수령들처럼 농본 위주의 정책을 전

116) 『慶州盧氏族譜』, 「西山窩公家狀」, p.272.

117) 오수창, 「18세기 영조정조의 평안도에 대한 정책」, 『역사와 현실』17, 1995, pp.157~175; 하명준, 『조선의 근대전환과 평안도 연구-평안도인의 정치·문화 운동-』, 경인문화사, 2017, pp.75~92.

118) 『노상추일기』, 1794년 5월 26일.

개하였다. 사실 그는 관직에 들어서기 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평생 농업경영에 지대한 관심을 쏟았다.¹¹⁹⁾ 삭주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노상추의 일기에는 농사의 형편과 상황을 세심히 관찰하고 소회를 적은 기록들이 이루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수두룩하다. 가령 새해 첫날에 노상추는 온화한 날씨를 보고 풍년들 조짐을 기대하며 미리 기뻐하였다.¹²⁰⁾ 여름철에는 농민들이 날마다 旱災를 호소하는 것으로 변민하였고,¹²¹⁾ 또 어떤 날은 충분한 강우량에 흡족해 하며 매우 다행이라고 안도하는 모습¹²²⁾ 등에서 농사에 대한 노상추의 관심 정도를 넉넉히 살필 수 있다.

그런데 노상추가 보기에 당시 삭주에서는 상인들이 금광 채굴에 깊숙이 관여하여 영리를 추구함으로써 농민을 동요시키는 등 고을에 커다란 폐단을 야기하고 있었다. 국법에서도 함부로 금을 채취하는 행위는 사형에 처할 만큼 엄중히 단속하는 실정이었다.¹²³⁾ 그리하여 노상추는 삭주에서 금의 채굴에 관계된 상인, 물주, 덕대, 채금꾼 등을 대대적으로 체포하려 했다. 이 때 채금꾼의 우두머리격인 사람이 이웃한 泰川에 살고 있어 태천수령에게 협조를 구하였다. 하지만 번번이 태천수령의 방해로 저들의 체포에 실패하게 되자 그 경위를 감영에 호소함으로써 두 고을이 다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결국 태천수령이 노상추에게 전갈을 보내고 서로 만나서 힐난했던 말을 거두기로 하고서야 사태가 겨우 진정될 수 있었다.¹²⁴⁾

비록 태천수령과의 갈등은 봉합되었지만 이와 같은 다툼은 언제든지 재발할 소지가 있었다. 이는 단순히 목민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고을 간의 알력 다툼이 아니라 노상추가 견지한 ‘영남인 무관’으로서의 지역 인식과 정체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상추는 몇 차례나 채금꾼의 체포에 비협조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태천수령은 세력이 있는 음관으로

119) 이정수, 앞의 논문, 2011, pp.238~249.

120) 『노상추일기』, 1794년 1월 1일.

121) 『노상추일기』, 1794년 6월 29일.

122) 『노상추일기』, 1794년 7월 11일.

123) 『노상추일기』, 1794년 7월 25일.

124) 『노상추일기』, 1794년 6월 4일~9월 1일.

무관 수령을 멸시하여서 나라의 금법을 살피지 않는다”라고 단정하였다.¹²⁵⁾ 이와 관련해서 다음에 제시된 글은 노상추가 지닌 지역에 대한 인식과 무신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어떠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지금 나라의 풍속을 보면, 유학을 숭상하는 道는 영남이 최고이고, 호서와 호남은 사족이 단지 벼슬살이만 알고 유림을 알지 못하여 헛된 이름만 있고 실체가 없다. 이런 까닭에 다른 道에서 서원을 세우고 선현을 배향하는 것은 오로지 권세와 이익 때문이며, 五常을 위한다는 것은 과장인 것 같다. … 그러나 영남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집안의 교육을 배우고 익혔으면서도 몸은 武夫가 되었으니,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으며 실로 개탄스러운 바이다.¹²⁶⁾

이처럼 노상추는 ‘영남인’으로서의 자긍심이 강한 인물이었다. 동시에 유학의 본고장인 영남에서 태어났고 학문을 하는 집안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신으로 행세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개탄하였다. 세상에서는 武夫에 대해 천하고 비루한 무리 곧 鄙類라고 칭하고 있었다. 무인들은 염치가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며, 주색만 좋아하고, 名教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리하여 노상추는 본디 士類를 꿈꾸었으나 鄙類로 손가락질 받는 무인이 된 것을 자괴하였다. 하지만 그럴수록 예의염치를 굳건히 지켜서 바르게 나아가간다면 무인들을 폄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마음을 다잡기도 하였다.¹²⁷⁾

노상추가 법도에 맞는 무인의 길을 걷고자 했던 만큼 체통과 의리에서 벗어나는 일에는 타협하지 않으려 했다. 그것이 앞서 언급한 태천수령과 갈등을 빚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그리고 이는 다시 창성부사와 심각하게 대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정조 18년(1794) 1월, 노상추가 삭주부사로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평소 알고 지내던 창성부사를 방문하였는데, 아문

125) 『노상추일기』, 1794년 6월 23일. “泰倅以有勢南行 蔑視武倅 不顧國禁.”

126) 『노상추일기』, 1795년 7월 25일. “然以今國俗觀之 崇儒之道 嶺南爲最 兩湖則士族徒知仕宦 不知儒林 而虛名無實矣 以故他道之建學 宇享先賢者 專以勢利 而爲之五常 有若虛張矣…然生長嶺處 習聞家庭 而身爲武夫 有口無言實所慨然.”

127) 『노상추일기』, 1808년 10월 18일.

에 도착하니 창성이 삭주의 별무사를 관장하는 체통이 있다는 구실로 정문을 열어주지 않고 협문으로 안내하였다. 노상추가 버티고 들어가자 않자 비로소 정문으로 출입하게 되었지만,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체통과 의리가 손상되었다고 여겨 두고두고 불화를 일으켰다.¹²⁸⁾ 이러한 창성수령과의 마찰과 충돌로 삭주부의 행정과 군사 운영은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¹²⁹⁾ 이런 가운데 감영에서는 삭주부사에게 이웃 고을끼리 공경을 하지 않았다는 처분을 내렸고, 창성부사에게는 스스로 당치 않은 지위를 칭해서 사체를 손상시켰다고 판별하였다.¹³⁰⁾ 급기야 이 해 12월의 포폄에서 노상추는 창성부사와 더불어 ‘中’을 맞아 파직되고 말았다.¹³¹⁾

이렇게 해서 서울로 돌아간 노상추는 정조와의 대화에서 언급되었던 방어사에 끝내 오르지 못하였다. 즉 노상추는 정조 20년(1796) 12월에 오위장에 재임용되었고,¹³²⁾ 정조 22년(1798)에는 羽林衛將과 內將(禁軍將)에 제수되었다.¹³³⁾ 다시 그 2년 뒤인 정조 24년(1800) 3월에는 千總에 임명되었다.¹³⁴⁾ 이것이 정조 임금에게서 받은 노상추의 마지막 관직이었다. 이 무렵 까지도 吏曹 인사에서 무신 자리의 수령은 남인에게 한사람도 의망되지 않았고, 병조 인사에서는 노상추만이 거의 유일하게 內職에 등용되고 있었다. 노상추의 표현을 빌리자면 “남인은 온 세상에서 용납되지 못하고 오직 임금께서 굽어봐 살피주시기만을 바랄 뿐”이었다.¹³⁵⁾ 그러나 영남 남인과 자신의 功名이 오직 임금에게 달려 있다는 절박함을 뒤로 하고 정조 24년(1800) 6월 ‘主上’이 갑작스레 승하하여 정조에게 품었던 노상추의 모든 기대는 물

128) 『노상추일기』, 1794년 1월 10일.

129) 『노상추일기』, 1794년 3월 1일·2일, 5월 29일, 6월 4일, 7월 12일, 8월 16일·17일·18일.

130) 『노상추일기』, 1794년 8월 26일.

131) 『노상추일기』, 1794년 12월 17일.

132) 『노상추일기』, 1796년 12월 21일.

133) 『노상추일기』, 1798년 6월 21일, 11월 19일.

134) 『노상추일기』, 1800년 3월 7일.

135) 『노상추일기』, 1798년 6월 21일. “南人者卽一世之所不容 惟恃天日之俯燭而已 奈何奈何.”

거품이 된 채 사라지고 말았다.¹³⁶⁾

IV. 맺음말

지금까지 정조대 남인계 영남 무관 노상추의 지역 정체성과 북방에서의 관직 활동을 살펴보았다. 이 시기는 서울을 근거지로 한 노론 중심의 경화사족이 득세하던 때로서 지역과 당색이 벼슬살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노상추는 명망 있는 영남 남인의 사족 출신으로 초창기에는 조선시대 여느 양반들이 열망했던 것처럼 문관으로의 출사를 도모하였다. 그렇지만 숙종대 환국 과정에서 노론에게 黨禍를 입은 뒤로 조부 노계정이 무관의 길을 걸었던 전력에 따라 결국 노상추도 20대 초반에 문과를 포기하고 무과 공부로 돌아서게 되었다. 이후 노상추 집안은 대대로 무과 급제자를 배출하는 전형적인 무반가문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노상추는 35세가 되던 정조 4년(1780)에 마침내 무과에 급제하였다. 이처럼 과거 급제에 십수년의 세월이 요구되었던 까닭은 개인의 능력보다 家勢와 지역 출신 등을 따지는 과거 운영의 부조리에도 원인이 있었다. 급제 뒤에는 다시 선천과 벼슬을 얻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나날들을 보내야 했다. 노론이 정권을 잡은 갑술환국(1694) 이후 영남 남인은 정치적으로 소외되었을 뿐더러 남인 일부가 가담한 戊申亂(1728)이 진압되면서 중앙 진출의 기회가 거의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노상추는 정조 8년(1784), 무과에 급제한지 4년이 지나서야 종9품의 武兼에 낙점되어 첫 벼슬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3년이 지난 정조 11년(1787)에 함경도 갑산의 진동만호로 발령받았다. 이를 두고 노상추는 세력이 없어 변방으로 쫓겨나는 것이라고 세태를 한탄하였는데, 그 변방에는 변방 갑산을 오랑캐의 땅으로 여긴 지역인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136) 『노상추일기』, 1800년 6월 28일.

진동진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서울로 복귀한 노상추는 노론이 장악하고 있던 중앙 정계에서 고질화된 당쟁과 영남인 배척이라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러던 중 노상추는 정조와의 만남을 통해 관료 생활의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였다. 정조는 노상추가 충성과 절의로 명성이 높던 노계정의 손자임을 확인하고 노상추를 당상관의 반열인 정3품의 평안도 삭주부사로 임명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영남 남인계의 발탁과 중용은 노론의 독주를 막고 당쟁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정조의 탕평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노상추는 삭주에서 정조의 평안도 정책에 부응하는 목민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것은 문치보다는 상무에 기반해서 지역의 군사 역량을 진작시키는 양상을 보였다. 아울러 금광 개발이 치성했던 분위기를 누르고 농본을 위주로 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목민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웃한 고을의 수령들과 갈등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이는 단순히 고을 간의 알력 다툼이 아니라 노상추가 견지한 ‘영남인 무관’으로서의 지역 인식과 정체성에서 연유한 측면이 있었다. 그는 영남이 전국에서 유학을 숭상하는 최고의 지역이라고 자부하였으나, 동시에 자신이 세상에서 멸시하는 ‘武夫’라는 사실을 자괴하였다. 그렇지만 법도에 맞도록 행동한다면 무인이라고 해서 폄하될 이유가 없다는 신념을 갖고 체통과 의리에서 벗어나는 일에 타협하지 않으려 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목민관들과 불화가 발생하여 결국 삭주부사에서 파직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후 노상추는 서울에서 몇몇 관직에 제수되었으나 영남 남인의 버팀목이던 정조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功名을 이루고자 했던 그의 노력도 결실을 맺지 못한 채 끝이 나고 말았다.

※ 이 논문은 2018년 7월 31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8년 8월 14일부터 9월 9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9월 10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慶州盧氏族譜(丙子譜)』

『己甲錄略上』

『盧尙樞日記』

『肅宗實錄』

『承政院日記』

『一善志』

『正祖實錄』

『竹月軒文集』

문숙자, 『68년의 나날들, 조선의 일상사-무관 노상추의 일기와 조선후기의 삶-』, 너머북스, 2009.

吳洙彰, 『朝鮮後期 平安道 社會發展 研究』, 일조각, 2002.

李樹健,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일조각, 1995.

張弼基, 『朝鮮後期 武班閥族家門 研究』, 집문당, 2004.

하명준, 『조선의 근대전환과 평안도 연구-평안도인의 정치문화 운동-』, 경인문화사, 2017.

구완희, 「조선후기 ‘難治邑’의 여러 유형과 처방」, 『역사와 경계』70, 부산경남사학회, 2009.

金文植, 「嶠南賓興錄」을 통해 본 정조의 대영남정책」, 『退溪學報』110, 퇴계학연구원, 2001.

박홍갑, 「경주노씨 성립과 그 일파의 선산지역 정착과정」, 『역사와 실학』31, 역사실학회, 2006.

오수창, 「18세기 영조정조의 평안도에 대한 정책」, 『역사와 현실』17, 한국역사연구회, 1995.

李成妊, 「조선후기 경상도 한 武班家의 가족구조 재구성-호구단자와 일기의 비교검토-」, 『대동문화연구』83,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3.

이정수, 「조선후기 盧尙樞家의 재산변동과 농업경영」, 『지역과 역사』29, 부경역

사연구소, 2011.

李泰鎭, 「18세기 南人의 정치적 쇠퇴와 嶺南地方」, 『民族文化論叢』1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정우봉, 「조선후기 풍속지리 문헌에 나타난 關北 지역과 그 인식의 차이」, 『고전과 해석』, 고전문학한문학회, 2015.

정해은, 「조선후기 무신의 중앙 관료생활 연구-『盧尙樞日記』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143, 한국사학회, 2008.

崔承熙, 「朝鮮後期 兩班의 仕宦과 家勢變動-善山 武班家 盧尙樞의 事例를 中心으로-」 『한국사론』19, 서울대 국사학과, 1988.

No Sangchu's regional identity and official activities in the Northern regions during the reign of King Chǒngjo

Ha, Myung-joon

No Sangch'u, a Confucian scholar from the Southern faction in the Yǒngnam area, entered government service in the reign of King Chǒngjo and originally intended to be a civil officer(文官). However, due to the fact that his family had suffered in the course of Hwan'guk(換局, change of government) during the reign of King Sukjong, and also the fact that the Nam party from the Yǒngnam area was politically neglected and regionally discriminated, he changed his course and became a military officer(武官).

In a political state with Noron taking the lead, No Sangch'u had to endure extremely difficult situations. When he was appointed as Chindongmanho(鎭東萬戶) of Kapsan, Hamgyǒng province in the year of Chǒngjo 11 (1787), he saw it as banishment due to poor power, which was also a result of perceiving his new post as barbaric grounds.

An encounter with King Chǒngjo led to a turning point in No Sangch'u's career. As a special royal order of the king, No Sangch'u was promoted as governor of Sakchu. While his government activities were focused on encouraging military spirits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he also experienced unfortunate dissonance with

neighboring governors. This was an outcome of No Sangch'u's regional perception and identity as a military officer of Yŏngnam origin. As a result of this incident, No Sangch'u was dismissed from Sakchu. The death of king Chŏngjo eventually rendered his efforts in achieving accomplishments to fail.

Keywords

No Sangchu, King Chŏngjo, Yŏngnam area, Southern faction, regional identity, official activities in the Northern regions